

월간양계를 통해서 본 양계산업 발전과정

본고는 월간양계 창간 27주년을 맞이하여 69년 첫호부터 현재까지 월간양계를 통해서 본 양계산업 발전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한 단락 끝에는 기사내용이 게재되었던 월, 페이지를 기록하여 참고로 삼았다.
— 편집자 주 —

69년

월간양계 첫호 발행 월간양계가 1969년 11월 1일 (사)한국가금협회(회장, 발행인 오봉국)에서 첫호가 발행되었다. 당시 오준석 농림부 축산국장이 창간사를 집필하였는데 본문은 48페이지 광고는 단색 20, 원색 6페이지로 발간되었으며 월간양계 제호는 7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윤석봉 박사가 쓴 필체로 사용하고 있다. (69. 11)

닭경제능력검정 시작 제 1회 산란계경제능력검정이 65년 예비검정을 거쳐 66년 4월 1일부터 69년 8월 4일까지 3회에 걸쳐 출품자 51개소 검정계 총 2,550수에 대해 첫 실시되었다. 또한 제1회 육용계 경제능력검정은 9월 9일 실시되었다. (11. 40)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결성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가 10월 18일 당시 서울농대 오봉국 교수가 회장에 취임하면서 25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12. 46)

퓨리나코리아 국내 생산 69년 초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첫 외자도입으로 생산에 들어간 퓨리나코리아가 1일 8시간 기준 16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월 3,000톤규모를 자랑했다. (70. 5. 48)

70년

동물약품협회 결성 연간 동물약품 판매가 1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되면서 사료첨가제 회사들이 모여 2월 동물약품협회를 창설하였다. (3. 78)

한국카길사료 생산 돌입 합작투자회사인 한국카길사료는 69년말 준공하여 사료생산기간을 거쳐 3월 17일 부터 1일 100톤의 생산규모로 생산에 들어갔다. (4. 57)

서울사료 공장준공 부화 및 양계업자들이 투자하여 건립한 최초의 사료회사인 서울사료는 5월1일 하루 생산능력 60톤(8시간 기준)의 시설을 완비하고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3. 79)

제일산업 펠렛 사료공장 준공 제일산업에서는 6월 말부터 국내 처음으로 펠렛사료공장을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그 다음해 2월부터 두 번째로 펠렛을 생산한 업체는 한국축산이다. (4. 57)

박정희 대통령 한국카아길사 방문 5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구로동 수출공업단지를 둘러보고 수원에 있는 한국카아길사를 방문, 제조공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값싼 배합사료의 생산으로 농민소

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을 당부하였다. (7. 56)

일본 계의연구지 필화사건 한국인 정연규씨 (농촌연구가)가 일본에서 발행하는 계의연구지에 한국양계의 현상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는데 내용이 너무 사실과 동떨어져 업계의 분노를 샀으며 월간양계에서도 그 잡지사에 정식 항의를하여 사과문과 함께 올바른 양계의 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12. 110)

71년

마렉백신 국내 처음 도입 한미제약에서는 4월 10일 미국 멜크사의 마렉 예방백신을 수입,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 보급에 들어갔다. 이는 당시 마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60)

김재춘 회장 국회의원 당선 5월 25일 실시된 제 8대 국회의원 선거에 김포강화지구에 출마한 한국가금협회 김재춘 회장이 축산인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7. 93)

72년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발족 미국사료곡물협회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국사료곡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6월 1일 한국지부를 발족하였다. (8. 98)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발족 한국가금학회는 세계가금학회에서 한국지부를 32번째의 구성원으로 승인을 받아 지부를 발족하였다. (10. 68)

73년

대한양계협회 창립 한국가금협회와 한국부화협회, 한국초생추감별협회가 양계산업 발전과 단체의 병립으로 인한 사업의 중복과 불필요한 경비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단체별로 해산식을 갖고 4월 26일 오후 5시 여성회관에서 대한양계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6월 14일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농림부차관보 축산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회장에는 김재춘(전한국가금협회

회장, 국회의원)씨가 추대되었으며 부회장은 오세정(건대측대) 교수와 이필용(소신종계장), 윤경중(서울부화장)씨가 선출되었다. (5. 84)

연탄파동 심각 연탄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육추에 필요한 연탄의 부족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양계협회와 농림수산부는 상공부에 긴급협조를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8월 정부에서는 연탄구매카드제를 마련하고 사업용 연탄을 황색 카드로 표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무제한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런 조치로 연탄공급이 호전되면서 병아리 주문량이 늘어나는 현상도 초래하였다. (74. 1. 116)

74년

계란등급 조정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2월 6일 회의를 갖고 그동안 사용해오던 계란등급제도를 조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는데 이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개정된 등급 - 특란 : 60g이상, 대란 : 54g-60g미만, 중란 : 47g이상-54g미만, 소란 42g이상-47g미만, 경란 : 42g미만(3. 84)

고려인삼계정 월남에 수출 유한양행은 동남아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인삼과 닭고기를 섞어서 가공한 고려인삼계정 2,000타를 월남에 처녀수출하였다. 월남에 인삼제품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었다. (5. 72)

서울시 주택가에 가축사육금지령 주변환경이 불결해져 전염병의 온상이 되기 쉽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10km이내에서는 절대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10. 59)

75년

부정부화업자 강력 단속 농림수산부는 일부 부화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화를 실시하여 불량한 병아리를 생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 3개월간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3. 68)

켄터기 후라이드 치킨 서울 상륙 한국켄터키하우스(주) (대표 권승주)에서는 미국의 켄터키후라이드치킨사와 상담을 마치고 통닭구이용 기계를 수입, 종로구 서린동에 10월 15일 기관식을 가지면서 국내 처음으로 후라이드치킨을 선보였다. (11. 132)

76년

한국가금처리협회 발족 농수산부가 고시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라 육계의 위생처리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1월 16일 대한사료회의실에서 가금처리협회가 발족했다. (2. 96)

천호부화장 순계도입 9월 10일 천호부화장(대표 이계조)은 하이섹스 백색, 갈색 산란계와 하이브로 육용계 PL 965수를 도입하였는데 이후 PL에서 개량되는 순수한 국산계 개발이 본격화 되었고 국산계인 마니나, 마니커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1. 74)

77년

부화업 허가제, 종계업 등록제 변경 77년 3월부터 부화업이 허가제로 종계업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본회에서는 종계확인을 받지 않고 부화를 하는 경우, 종계확인을 받고 불량추를 생산하는 행위, 초생추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 종계의 배운을 고의로 바꾸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 39)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건의서 최초 제출 축산단체연합회는 4월 10일 본회 낙농협회, 기업목장협회, 양돈협회, 양도협회 이름으로 사료부가세 영세율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5. 94)

닭고기 계란에 대한 요리강습회 실시 9월 20일 주부클럽이 주최하고 양계협회 및 삼일농장의 후원아래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요리강습회가 양계산물의 홍보와 소비자의 유대관계 공고의 일환으로 국내 처음으로 이루어 졌다. (11. 66)

78년

이색광고, 이런 사람을 조심합니다. 12월 28일 본 협회에 다음과 같은 진정이 들어왔다. 산란계 수컷을 품질 좋은 육계라고 하며 소사, 일산, 판교, 성남 등지에 비싼 가격으로 팔고 다녀 가뜩이나 병아리 구하기 힘든 양계인들을 골탕먹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의 인상착의를 월간양계에서 상세히 소개하여 양계인들에게 주의를 알린 적이 있었다. (1. 80)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설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이 발기인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2일 신문회관에서 개최된 후 정관 사업을 마치고 6월 7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정식 출범하였다. 초대 조합장은 윤도진씨가 선출되었다. (6. 168)

한국단미사료협회 발족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전동수)가 10월 19일 정식 발족되었다. (11. 193)

79년

시세업서 발행 본회에서 발행하는 양계속보의 전신인 시세업서가 1월 11일 채란분과위원회 개최시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2월부터 발행하기로 결정, 연 3,000원의 구독료를 받고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 125)

계란 수입 관세율 80% 계란 수입에 따른 국내 계란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1월 17일 관세율을 80%로 대폭 인상하고 80년 1월 부터는 수입 자동승인 품목이던 계란을 수입 제한 품목으로 바꿔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12. 173)

일본에 종계 수출 개시 한협가금농장에서는 80년 1월 9일 코브종계 3,500수를 시작으로 처음 수출에 들어갔다. (12. 18)

계우회연합회 발족 11월 20일 현대양계 회의실에서 34명의 계우회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계우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계우회 연합회가 발족하였다. (1. 22)

80년

한일농원 일본에 아바에이카 중계 수출 한일농원(대표 차두홍)은 처음으로 일본에 1월 11일 1차적으로 4천 6백수의 아바에이카 중계를 수출하였다. (2. 157)

배합사료가격 자율화 배합사료의 가격자율화가 기존에 실시되어 오던 최고가격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배합사료 가격이 묶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자율경쟁에 의한 사료 가격이 적용되었다. (4. 27)

81년

축협중앙회 발족 축산진흥회와 농협의 축산관련기구의 업무를 통합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장 김일로)가 발족, 1월 1일 발족되어 6일 여의도 잠사회관에 위치한 축협중앙회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1. 143)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계란 수출 국내 계란값이 하락, 9천만개의 재고가 쌓이자 이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싼 가격에 홍콩과 사우디 아라비아에 81만개의 계란을 수출하였다. 이는 각종 마스크에서 오르내리면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 20일 동안 대란값이 개당 13원까지 인상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계란가격 동향을 파악하게된 점이 큰 수확으로 평가되었다. (5. 134)

천호부화장 영육사료공장 인수 5월 1일 천호부화장이 사료공장중에서도 역사가 깊은 영육농산 사료공장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건설될 현대적인 도계장과 더불어 계열생산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5. 137)

82년

천호그룹 출범 1963년 단일부화장으로 출발한 천호부화장(대표 이계욱)이 (주)천호통산(대표 김영근), 마니육종(대표 김영환), 천호기계(주)(대표 신현교)와 더불어 12월 19일 천호그룹(회장 이계조)으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명실공히 계열화 산업의 기

초를 다지게 되었다. (1. 124)

채란분과위원회와 전국계우회연합회 통합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해 사무실을 청량리 소재 한국계우회 사무실로 옮긴 바 있는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고태영)는 4월 2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전국지역 계우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 단위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지역 계우회 회장은 모두 대한양계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채란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고태영 전국계우회 회장을 선출하였다. (4. 126)

국내 최초 전염성후두기관염(ILT) 발생 국내에서는 발병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ILT가 강화를 비롯한 국내 양계장에서 발병되었음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확인되었다. (4. 135) 질병이 확산되자 TV를 통해 방역홍보를 하는 한편 ILT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백신을 긴급 수입, 보급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7. 154)

83년

GNE백신공급 닭의 전염성질병의 수가 많아지고 예방접종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백신접종의 번거로움은 물론 닭이 받는 스트레스로 양축가들의 불편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보로, 뉴켓슬, 신란저하증후군의 3개질병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GNE백신을 증계에 한해 7월부터 공급하여 증계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4. 161)

닭계군 혈청검사 사업 실시 본회는 가축위생연구소와 협조하여 닭계군혈청검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로부터 50%의 예산을 보조 받아 실시하였는데 닭혈청을 채취하여 혈청학적 검사방법에 준한 각종 닭 전염병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에 의한 효력측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전염병의 진단과 정확한 백신접종 시기를 알려주어 양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4. 162)

닭 수입자유화 조치

정부는 7월 1일부터 185g 이하의 증계를 제외한 닭에 한해 수입자유화를 실시하였다. (6. 177)

간이계사 철거령 경기도 일원에 보존돼간 간이계사에 대해 농지불법전용으로 농토가 잠식된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 철거령이 내려졌다. 당시 육계는 80%, 산란계는 30% 정도의 계사가 간이계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가 강행될 경우 수급차질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이로 인해 일부 약품업소에서는 간이계사는 외상사질이라고 써붙인 곳도 있었으며, 사료공장의 외상값 독촉도 대단하여 양축가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 (7. 167)

축산시험장 가금과 신설 10월 8일부터 축산시험장의 직제가 과거 기능별 위주에서 가족단위별로 재 편성되면서 7개과에 65명의 연구직이 근무하게끔 확대 개편되면서 가금과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가금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깊이있게 다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임 가금과장에 정신부 박사가 임명되었다. (9. 145)

84년

대형도계장 대정식품 준공 12월 18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공시설이 갖춰진 계육가공 공장인 금산에 준공되었다. (1. 159)

동원참치 예곡광고에 항의 빗발 본회를 비롯해 양돈, 낙농육우 등 3개업체는 5월 20일자 격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사 발행)와 5월 24일자 주간매경(매일경제신문사 발행)에 가족의 고기(동물성 단백질)를 먹으면 마치 명만큼 살지못한다는 내용(약주고 병주는 가족의 고기)을 게재한 동원참치사에 강력한 항의와 해명을 요구했다. (6. 146)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 준공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가 11월 15일 안성군 서운면에 부지 11,410평 위에 건평 1,142.5평 규모로 총 사업비 4억9천8백78만원을 들여 세워졌다. (12. 148)

85년

천호도계장 가동식 천호인티그레이션(주)(회장 이계조)의 신축도계장 가동식이 1월 19일 동두천시 하봉암동 소재 도계장에서 있었다. 이 도계장은 사

간당 3,600수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다. (2. 163)

아세아태평양양축산학회(AAAP) 서울총회 국내에서 처음 개최 아세아태평양양축산학회 서울대회가 5월 6일 부터 5일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워커히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5. 174)

추백리진단역 본회에서 일괄 공급키로 추백리 진단역 공급창구를 일원화, 6월부터 본회를 통해서 일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추백리검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 추백리의 완전 퇴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6. 164)

전국계우회연합회 생업사수 농성 기업의 양계업 진출에 항의하여 전국계우회 연합회(회장 임용택)는 3월 24일 농수산부, 국회농수산분과위원회, 천광산어 등에 계우회연합회의 결의사항을 통보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백여명의 회원이 충남아산 소재 천광산업 현장에서 생업사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을 하였다. 이후 동사에서 채란양계부문의 계획을 축소조정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6. 179)

배합사료 수입자유화 배합사료 수입이 7월 1일부터 자유화 되었다. 상공부는 86년도 하반기 수출입기별 통합고시에서 양계 및 애완동물용 배합사료를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라 그동안 수입되지 않았던 배합사료 수입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관세가 20%로 적용되어 사료원료곡물 7%보다 높아 수입가능성이 높지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7. 152)

천호인티그레이션 삼계탕용 삼계 수출 천호인티그레이션(주)는 중량 400-500g의 삼계탕용 85년 2월에 이어 세번째로 6월 12일 총 24,000수중 8,000수를 수출하였다. 이후 해마다 꾸준한 수출이 있어왔다. 수입원은 일본 도쿄 야마다 울산이다. (7. 158)

87년

주간양계속보 발간 본회는 4월 3일 양계속보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내용은 그동안 업서를 통해 전달되던 계란, 육계가격, 초생추 시세, 노계시세,

사료생산실적, 전망 등이 모두 수록되고 양계관련 소식란을 편집해 2쪽 칼라로 인쇄하였다. 당시 구독하는 회원들에게는 연간 1만원의 협찬금을 받았으며 비회원에게는 1만 5천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4. 148)

가금처리협회 설립 인가 사단법인 대한가금처리협회(회장 유종래)가 6월 3일 정식허가를 받고 업무에 들어갔다. (7. 155)

위생란 상표등록 출원 이의로 취소 본회는 한국냉장(주)의 위생란 및 위생계란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9월 9일 특허청 농림수산부 요소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농가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의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상표등록이 취소되었다. (10. 154)

88년

전국양계인 단합대회 개최 전국양계인 단합대회 추진위원회(회장 정창각) 주최로 2월 5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양계인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닭고기,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의 수입을 결사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3. 162) 이날대회는 본회를 비롯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전국계우회연합회, 육계농가안정협의회, 한성협동중앙회 등의 양계관련 5개 단체가 후원하였다. (4. 149)

닭고기 계란수입 결사반대 시위, TV 생방송 본회는 2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경기지역 양계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계란수입 결사반대', '30만 양계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라', '안보적 차원에서 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MBC, KBS TV에서는 시위광경을 전국에 생방송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3. 153)

천하일사료 통합 탄생 제일사료(주)와 (주)천호동상이 4월 1일부로 통합, 상호를 천하제일사료로 변경하였으며, 양사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장점을 최대한화하여 새로이 출발하였다. (4. 162)

현대가금학 발간 현대가금학이 서울대 농대 학

장으로 재직중인 오봉국 교수에 의해 발간되었다. (5. 159)

제1회 닭고기 계란 홍보포스터 현상공모 본회는 소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닭고기·계란의 소비촉진을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1회 닭고기, 계란소비 홍보포스터를 현상공모하여 59점을 접수, 입상자를 발표했다. (6. 148)

축산회관 건립 기공식 한국중축개량협회(회장 송찬원)가 추진하여오던 축산회관 이전을 위한 건립 기공식이 5월 26일 서초구 서초동에서 있었다. (6. 155)

한국부화협회 창립 한국부화협회는 8월 12일 교통회관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에는 한협축산 박준영씨가 선출되었다. 이후 90년 7월 25일 한국부화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96년 4월 29일 운영의 어려움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9. 188)

본회 마크 및 기 제작 본회를 상징하게될 마크와 기를 제작, 사용하게 되었다. (10. 145)

본회 사무실 이전 본회 및 중축개량협회, 낙농육우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축산회관이 서초동으로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12월 20일 본회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12. 146)

89년

KBS-1TV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 방영 관련, 축산관련 9개 단체 강력 항의 KBS-1TV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을 황금시간대에 방영, 축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9개단체가 즉각 항의를 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3. 155)

축산업계 대표 대통령과의 첫 면담 본회 정태원 회장을 비롯한 축산인 40여명은 6월 14일 청와대에 오찬을 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해 면담을 했다. 축산업계에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만나 현

안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과도기적 입장에 있는 축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7. 154)

건강식생활 365일 육과 육제품 팜플렛 내용에 강력 항의 본회는 한국육가공협회에서 발행한 건강식생활 365일 육과 육제품 내용에서 콜레스테롤치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계란에 대해 유독 노른자만의 수치를 기재하고 쇠고기는 살코기만의 콜레스테롤치를 기재하여 계란전체가 마치 콜레스테롤 덩어리인양 매도시켜 이에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8. 162)

육계산업발전협의회 발족 육계생산자와 업계,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조를 기하고 양계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현안문제를 검토하여 대책방안을 강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육계산업 발전을 모색키 위하여 육계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10. 151)

광주, 안성계란집하장 준공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조합장 강희구)은 지난 11월 2일 제1계란집하장(광주) 준공식을 가진데 이어 21일 제2집하장(안성)의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당시 광주와 안성의 1일 처리 능력이 각각 60만개에 달했다. (12. 147)

뉴켓슬병 판명 산란계 1천수 매몰 처분 12월 22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정전염병인 뉴켓슬병이 진성으로 판명되어 산란계 1천수가 살처분 명령을 받아 매몰처분 되었다. (90. 1. 157)

90년

축산물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고시 보사부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항생물질잔류기준을 12월 6일 고시하고 1년간 경과기간을 거쳐 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항생제, 합성세균제, 성장호르몬제 등 항생물질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물은 수거, 폐기하기로 하였다. (1. 156)

1만수 이상 중추업 등록제 공포 농림수산부

는 1월 19일 1만수 이상 산란계용 중병아리를 사육하는 중추업을 등록제로 공포하였다. (2. 152)

한국양계연구소 월간 양계연구 창간 한국양계연구소(대표 김영환)는 양계 기술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양계시설 및 기술을 보급시키고자 월간지 양계연구 4월호를 창간하였다. (2. 157)

해외파견 초생추 감별사 총 263명 본회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초생추 감별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개국에 총 263명이 파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2명으로 가장 많고 서독 23명, 캐나다 22명, 오스트리아 14명, 헝가리 11명, 영국 10명, 스페인 9명을 비롯해 터키, 노르웨이, 볼리비아, 스위스, 벨기에,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이란, 홍콩, 우르과이, 덴마크,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세계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166)

직립식 자동화 계사 1호 탄생 충남 연기군 남면에 위치한 금강농장(대표 이양의)이 독일 빅더치만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하면서 국내 첫 자동화 계사를 선보였다. 6월 18일 첫 닭이 들어간 이 계사는 총 210평에 2만수의 닭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당시 평당 건축비는 1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7. 76)

암탉 1마리, 계란 7개에 40만원 부당이득 혐의로 영장 경북 영양에서는 토종닭을 훔친 10대의 부모로부터 과다한 보상금을 받아낸 닭주인이 부당이득혐의로 구속되었다. 영장을 받은 집주인은 집에서 기르는 암탉 1마리와 닭이 품고 있던 계란 7개를 10대 아이가 훔쳐 달아나는 것을 붙잡아 40만원을 받아냈다. 영장신청 이유는 토종닭과 계란값 33,500원과 닭장 파손비 5만원 등 피해액 83,500원보다 너무 많은 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8. 167)

UR농산물 협상 저지 서명운동 전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본회를 비롯한 회원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1. 189)

한국마사회 청소년부로 이관 축산인들이 결

사 반대해온 한국마사회 청소년부 이관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다. 본회를 비롯한 축산 단체들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건의서 등을 제출 하였고 국회에 철회요청을 청원하였으나 정치적 야 합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91. 1. 166)

91년

오메가란 개발 축산시험장 정선부 박사팀은 동 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고혈압 등 순환기성 성 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오메가 3 지방산 을 많이 함유되고 있는 오메가 계란을 개발하는데 성공했 다. (1. 172)

(주)서울인티 탄생 생산자중심의 육계계열화업 체로 출범한 (주)서울인티(대표이사 강석부)가 2월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4 년 3월 경영압박으로 부도를 맞았다. (3. 175)

계열화업체 지정 농림수산부는 91년도 축산계 열화 생산사업지원 업체로 영육, 대연식품, 성우를 계열업체로 지정하였으며 계열화 자금으로 한업체당 25억씩이 지원되었다. (6. 176)

동두천 계란집하장 준공 서울 경기 양계협동 조합은 7월 8일 양주군 회천읍에 제3 계란집하장을 완공하였다. 당시 시간당 1만개에서 1만 2천개의 선 별능력을 갖추었다. (92. 5. 152)

오봉국 박사 학술원상 수상 오봉국 박사가 축산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제 36회 대한민국 학술원 상을 수상하였다. (8. 174)

(주)하림 도계가공공장 완공 (주)하림(대표 김흥국)은 7월 1일 12만수의 육계를 처리할 수 있는 특급도계장 및 가공공장을 건평 5천평 규모로 전북 익산에 건립하였다. (8. 178)

한국재래닭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재래 닭연구회(회장 오봉국) 창립총회가 8월 30일 축산시 험장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9. 169)

제1회 한국양계박람회 개최 본회가 주최한

91한국양계박람회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올림픽 공원내 제2체육관(펜싱), 제3체육 관(역도)에서 참관객 3만2백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10. 17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농업생명과학대 로 명칭변경(12.173) 서울대학교가 92년 신학기 부터 농과대학을 농업생명과학대로 명칭을 바꾸고 동시에 축산과를 동물자원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 다.

92년

축협중앙회 육계계열화 사업 본격추진 축 협중앙회가 92년부터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육계 계 열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12. 61)

92선도양축농가 선발 지원 정부는 채란농가 에 2억1천만원씩, 육계농가에 1억5천만원씩을 연리 5%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산란계46개, 육 계 28개 선도양축농가를 선발해 사업계획에 따라 연 차적으로 자금지원을 시작했다. (12. 60)

한국축산기계공업협회 출범 한국축산기계공 업협회(회장 양창욱)는 서울 용산에 1월 17일 현판 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후 12월 사단법인이 로 정식출범하였다. (2. 171)

한국육계협의회 발족 91년에 해체된 육계산업 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재정부한 한국육계협회가 4월 28일 경기도 양주군 컨트리 클럽에서 발족되었다. (5. 190)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및 100만인 서명운 동 전개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6개 단체는 5월 21일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축산관련인 1천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 운동 추 진위원회(위원장 명익식)를 공식 출범시키고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6. 172)

자조금사업 본격 시행 농림수산부는 6월 1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3조와 동법 시행령 26조와 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자조금제도를 도입키로 하

고, 양계 및 양돈협회를 자조금사업 단체로 선정, 각각 3억원 이상의 자조금을 적립하면 최고 1억5천만원씩을 보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 174)

양계경영진단 사업 착수 본회는 92축산발전사업계획과 실시요령에 의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양계경영진단 사업을 7월 21일부터 착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육계 15개 농장, 채란 15개 농장을 선정해 실시하였다. (12. 60)

무허가 축사(계사) 규제조치 정부는 9월 15일 그동안 많은 양축농가들이 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고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전국의 4만여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12만동을 규제키로 확정,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신고를 받아 확인후 추진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홍보부족, 해당축사 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겹쳐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12. 59)

사이비 계열업체 사기부도 속출 92년 한해 동안 주로 생산만을 목적으로 계열화 사업을 시작했던 일명 사이비 계열업체들이 장기간 불황에 직면하면서 고의적인 사기극을 연출하는 등 부도가 속출, 생산농가는 물론 사료업체를 비롯한 관련업계에까지 큰 피해를 끼쳤다. (12. 60)

부가세 철폐 3당 대선공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자, 민주, 국민당 등 각 정당은 대선공약으로 농수산 관련 부문에 배합사료 및 약품, 기계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가장 큰 현안으로 공약하였다. (12. 61)

93년

닭고기 미절단 신선, 냉장육 개방 정부의 수입개방 일정에 따라 전 양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3년 1월 1일부터 닭고기 미절단 신선 냉장육에 대한 수입개방이 허용되었다. (12. 43)

한국육류수출협회 창립 (사)한국육류수출협회(회장 김강식)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육류수출을 목적으로 4월 창립총회를 갖고 12월 18일 정식 출범하였다. (94. 1. 162)

조미계란 개발 식품개발연구원 유익중 연구팀은 계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다양한 맛을 내는 조미계란을 개발하였다. 이는 물에 잘 녹는 소금, 비타민 등을 고압으로 이용, 계란에 투입하여 조적감과 저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182)

포천 계란집하장 개설 포천계란집하장이 7월 15일 1일 30만개 선별처리 능력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8. 182)

(주)미원 사료공장 중국 진출 미원사료사업본부(본부장 서형교)는 중국 북경시에 있는 동북왕향 배합사료 공장과의 합작으로 현지 사료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중국진출에 나섰다. (8. 191)

부화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정부는 6월 11일 부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공포하였다. (12. 45)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한국난가공(주) 인수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은 8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난가공(주)에 대한 공개입찰에서 31억6천6백만원에 인수키로 결정되었다. (9. 165)

천호그룹 부도 지난 30년간 한국양계산업의 선두주자역할을 담당해 오던 천호그룹(회장 이계조)이 경영악화로 인해 10월 2일 천호인터가 부도를 내고 천호부회장, 마니육종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양계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11. 183)

김영삼 대통령 (주)하림 방문 김영삼 대통령이 10월 16일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을 대동하고 (주)하림(대표 김홍국)을 방문, 자동화 시설을 갖춘 전 도계라인과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서 포장까지 전 과정을 시찰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11. 183)

UR 협상후 양계산물 수입개방 일정 발표 UR협상이 12월 15일자로 완전 타결되어 양계산물 수입개방 일정이 발표되었다. (94. 12. 49)

장작불 통닭구이 등장 83년 초부터 유원지를 근거로 장작불 통닭구이가 신종사업으로 붐을 일으키면서 하절기인 여름철에는 차량까지 동원한 기동

력을 갖추며 닭고기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12. 44)

94년

절단신선, 냉장닭고기 수입개방 축산물 개방화 조치에 의해 1월 1일부터 절단된 신선, 냉장 닭고기가 전면 개방되었다. (12. 50)

재래닭 육용화사업 추진 수입개방을 앞두고 재래종 닭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닭고기를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본회는 정부로부터 7억5천여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재래종닭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경제성이 있는 품종개량을 위해 재래닭 고 품질화 사업을 추진, 연구에 착수했다. (12. 49)

미원마니커(주) 천호인티 인수 93년 10월 부도를 내어 큰 파문을 던진 천호인티그레이션(주)가 4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 급기야 미원이 2월에 전격 인수하여 미원마니커(주) (대표 서형교)가 법인 설립을 하고 육계계열화사업에 돌입하였다. (12. 48)

노계전문처리 도계장 플그린 식품 도계장 준공 충남 천안에 위치한 플그린 식품(주) (대표 지덕호)가 2월 11일 준공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플그린은 1일 6만수처리규모를 갖고 있으며 노계전문 도계장으로서는 처음이며 최대규모이다. (3. 174)

파파이스 1호점 탄생 대한제당 계열사인 (주)해마로(대표 신래승)가 5월 20일 서울 압구정동에 1백평규모의 대형매장인 파파이스 1호점을 개점함으로써 패스트푸드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6. 183)

양계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그간 양계업 등록기준이 산란계 3만수 이상 육계 1만수 이상이었는데 7월부터 각 5만수씩 상향 조정되었다. 종계는 1천수 이상, 산란계용 중병아리는 1만수 이상은 종전과 같으며 농가당 면세 사육규모는 1만수 이하이다. (12. 50)

동방유량(주), (주)풍진 합병인수 동방유량(주) (대표 신명수)는 7월 29일 전문제조 및 사료제조 판매

업체인 (주)풍진을 흡수, 합병하였다. (8. 184)

여름폭염 양계업 강타 7,8월의 기온이 35도를 웃돌아 양계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계란 86원으로 전년대비 23%가 높아졌고, 닭고기는 2,200원으로 38%가 상승하였으며, 육용계 병아리는 620원으로 38% 상승, 산란계 병아리는 800원으로 14%가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2. 48)

육용실용계용 종란 첫 수입 여름철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증계피해가 늘어나 종란생산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대해 (주)하림이 9월부터 약 800만개에 달하는 종란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수입되어 부화된 병아리를 계약사육농가에 공급하여 닭고기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12. 49)

육계계열기업협의회 출범 육계계열기업협의회(회장 김홍국)가 10월 19일 육계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11개 육계계열업체가 참여하여 정식 출범하였다. (11. 189)

나주계란집하장 개설 광주전남양계협동조합(조합장 윤재삼)은 11월 22일 양계산업의 유통개선과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나주에 1일 40만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계란집하장을 개설하였다. (12. 179)

95년

본회 검정소 자동화시설 도입 국내 양계농가에 자동화가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검정수준을 높여 사양가들에게 질 좋은 병아리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94년 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공사에 들어간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가 자동화 계사(성계사 1동, 육추사 1동 공히 12,000수 규모)가 완공됨에 따라 3월 22일 안성소재 검정소에서 설명회를 갖고 검정사업에 착수했다. (4. 46)

닭고기 수입권 최초공매 UR협상의 일괄타결로 최소시장 저방방식에 따라 3월 9일과 28일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닭고기 수입권 공매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양계인들을 긴장시켰다. 7,700톤중 1차공

매시 3,000톤, 2차시에 4,700톤을 각각 공매하여 절단육 전량 낙찰, 미절단은 일부가 유찰되었다. (4. 68)

축산시설환경학회 발족 축산시설, 기계 및 환경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발전, 보급시킨다는 취지 아래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가 정식 발족되었다. (4. 189)

닭고기 신문광고 논란 본회와 육계계열기업협의회가 공동제작하여 닭고기소비촉진을 위해 5월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에 붉은고기를 구워먹으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광고내용에 대해 관련단체로 부터 강력 항의를 받아 업계화합 차원에서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일단락이 되었다. (12. 68)

육류생산분야에서 국내 최초 KS마크 획득 (주)하림(대표 김홍국)은 6월 28일 농림수산부로 부터 육류생산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KS마크를 획득했다.

사료 및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부분 적용 사료 및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이 부분적으로 적용, 시행되었다. 축산기자재는 3월 30일부터 50여종에 대해 일부 혜택을 받게되었으며 배합사료는 9월 26일자로 양계 1만수 이하 농가에 적용하였으나 사육수수로 볼때 15%정도에 머물러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소원함을 보여졌다. (12. 68)

가금티푸스 등 닭질병 만연 92년 부터 일부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가금티푸스가 94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95년도는 지역, 계절에 관계없이 만연되어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며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 (12. 69)

96년

해외전염병연구센터 개관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는 1월 25일 국제교역증가로 각종 해외전염병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 방제키 위해 해외전염병연구 센터를 개관하고 동물검역기능을 더욱 강화 시켰다. (2. 193)

가축전염병박멸대책위원회 발족 농림수산부는 전염병에 의한 농가피해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2월 산, 학, 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축전염병박멸대책위원회(분과위원장 김선중)를 발족, 효과적인 축종별 전염병 박멸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섰다. (3. 201)

가금인플루엔자 국내 첫 발생 3월 20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일농장(경기도 화성)에서 1만9천수의 계군 중 2천수의 닭에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이 종계장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잔류종계에 대해 살처분시키는 한편 살처분된 닭에대해 피해액의 80%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4. 197)

제일제당(주) 필리핀 사료공장 본격 진출 제일제당그룹(회장 손경식)은 6월 5일 필리핀 현지 사료유통업체인 Great Harvest사와 합작으로 총 1천5십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15만톤의 생산규모의 사료공장을 건설하기로 계약, 체결하였다. (7. 198)

닭고기 유해물질 잔류검사 실시 7월 1일부터 닭고기에 대한 항생제와 합성세균제 등 닭고기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검사가 실시되었다. (7. 16)

축산발전추진위원회 발족 7월 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학계, 업계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축산업의 위상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데 목적을 두고 본회 고문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오봉국 위원장을 주축으로 축산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8. 199)

중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창립 중계부화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월 24일 전국 부화종계인이 모인 가운데 중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회장 노태모)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활동에 들어갔다. (8. 202)

농림수산부, 농림부로 개칭 정부조직법 개정안(직제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고 수산계업무는 새로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9. 198)